

4Q지침서(4Q415-418):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종말론적 지혜

이윤경(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지혜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¹이라고 정의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지혜를 “삶과 행동에 관한 문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수단과 목적의 선택에서 판단의 건전성, 때로는 덜 엄밀하게는 특히 실제적인 문제에서 건전한 감각: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것”²이라고 정의한다. 유사하게 퍼듀(Perdue)는 “개념(즉, 지혜)은 경험적 경험, 합리적 사고, 비교 분석을 통한 지식의 획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구된 결론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³고 말함으

1 지혜,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A7%80%ED%98%9C>

2 Oxford English Dictionary, “wisdom (n.)” <https://doi.org/10.1093/OED/6452400914>.

3 Leo G. Perdue, *The Sword and the Stylus: An Introduction to Wisdom in the Age of Empire*

로써 경험적 지식과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실용적 지혜의 측면은 구약성서의 지혜 문헌, 특히 잠언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더욱이 구약의 지혜 문학인 잠언, 전도서, 욥기는 실용적 지혜와 토라를 독특하게 연결한다.

그런데 지혜는 그 개념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였다. 제2성전 시대(기원전 515년-서기 70년) 이후 지혜는 세속적인 기술과 처세술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지혜 전승의 궤적에서 지혜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 “신비한 표징으로 암호화된 지혜”⁴로 확장되었다. 구약성서에서 제2성전 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지혜의 변화는 외경과 위경의 지혜 문헌에서 볼 수 있다.⁵ 예컨대, 『지혜서』에 나타난 신비한 지혜나,⁶ 무엇보다 지혜와 불멸 개념을 연결하는 데서⁷ 지혜 개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폰 라트가 지적했듯이, 거룩한 신비는 “가르침의 대상이 되었고, 알려진 것은 인간에게 숨겨진

(Eerdmans, 2008), 11.

- 4 George M. Schwab, *Hope in the midst of a Hostile World: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 (P&R Publishing Company, 2006), 22.
- 5 John Kampen, “Wisdom Literature of the Apocrypha and Related Compositions of the Second Temple Era,”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Apocrypha*, Gerbern S. Oegema, ed. (Oxford Academic, 2021), 271-283.
- 6 예컨대, 『지혜서』 7:17-21은 단순한 세상의 경험적 지식 외에, ‘감추어진 지식’을 언급한다. “그분은 나에게 만물에 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구성요소의 힘을 알게 해 주셨고, 시대의 시작과 끝과 중간, 동지, 하지의 구분과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해 주셨으며 해가 바뀌는 것과 별들의 자리를 알게 해 주셨고 동물들의 성질과 야수들의 본능, 그리고 요괴들의 힘과 인간의 생각, 또 각종 식물들과 그 뿌리의 특성을 알게 해 주셨다.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드러나 있는 것은 물론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2005년에 발행된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 7 『지혜서』 주제는 지혜, 토라, 정의, 의인의 불멸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지혜서 6:17-19는 지혜와 토라와 불멸을 연결한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열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따름은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 주는 것이다.”(2005년에 발행된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것과 전혀 관련이 없기에,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교사들의 의무였다.”⁸ 이는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 장르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지혜는 신비(17/라즈)와 연관되어 지상에서 잘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⁹

무엇보다 제2성전 시대 지혜 개념의 변화는 콤란문서의 지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혜 문헌은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제2성전 시대, 특히 종파 공동체의 지혜에 대한 독특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콤란에서 출토된 지혜 문헌은 잠언(4Q102-103), 욥기(4Q99-101), 전도서(4Q109-110), 집회서(2Q18; 11Q5) 등 성서 지혜 문학 사본을 포함하여 매우 많다. 한편 탈군 욥기(4Q157, 11Q10), 어리석은 여인에 대한 시(4Q184), 지혜 교훈의 일부(4Q185) 등 성서 밖 지혜 문헌도 사해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4Q지침서(4QInstruction/Musar Le-Mevin/Sapiential Work A, 1Q26, 4Q415-418, 423)¹⁰와 4Q신비의 서(4QMysteries; 1Q27, 4Q299-301)¹¹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들이다.

8 G. von Rad, *Wisdom in Israel* (Abingdon Press, 1972), 293.

9 다니엘 2:18, 2:19, 2:27, 2:30, 2:47; 4:6(개역개정 4:9)에서 17(라즈)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 차용어이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다니엘서 아람어 단락에 나타난다.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는 ‘은밀한 것’으로, 표준새번역은 ‘비밀’로 번역한다. 가톨릭 번역은 다음과 같이 ‘신비’로 번역한다.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트사차르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떠한 신비도 너에게는 어렵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내가 본 꿈은 이러하니 그 뜻을 말해 보아라”(2005년에 발행된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다니엘서 후반부 7-12장은 특히 기원전 160년대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 시대를 배경으로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10 4Q지침서는 콤란 공동체에서 저작된 종파적 문서라는 것이 주류 입장(예: John Strugnell, Daniel J. Harrington, Torleif Elgvin 등)이다. 그러나 4Q지침서가 콤란 밖에서 저작된 후, 콤란 공동체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Michael E. Stone, James C. VanderKam, Armin Lange). 본 논문에서는 DJD 34의 편집자인 스트루그넬과 해링턴의 입장을 따라, 종파적 문서로 본다.

11 4Q신비의 서의 콤란 저작을 주장하는 학자들(Florentino García Martínez, Torleif Elgvin, Devorah Dimant 등)과 콤란 밖 저작을 주장하는 학자들(Michael E. Stone, James C.

지혜 담론을 고려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혜와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지혜를 가졌는지, 어떤 지혜를 전파하는지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담론은 무엇이 지혜인지, 누구의 지혜가 올바른 지혜인지, 반지혜(anti-wisdom)인지, 심지어 가짜 지혜(pseudo-wisdom)인지를 가르는 권력 담론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쿰란 지혜 문학 중 4Q지침서의 핵심 메시지를 분석함으로써, 쿰란 공동체가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종교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 담론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갔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위기 시대의 지혜 담론

구약성서에서 지혜(חכמה/호크마)는 전쟁이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이나 행정력에 관한 지식을 지칭한다.¹² 그러나 구약의 지혜 문학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궁극적 지혜는 세속적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잠 1:7; 2:6; 9:10),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호 4:6; 6:3; 사 9:11)이다. 지혜와 지식은 분명 두 개의 독립된 다른 명사이며, 지혜가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용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구별 없이 나란히 언급한다(출 31:3; 35:31; 사 33:6; 욥 26:3; 전 2:21 등). 이런 현상들을 고려할 때, 구약에서 지혜와 지식은 실제 어법에서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¹³

VanderKam, Armin Lange)이 있지만, 대체로 쿰란 저작을 수용한다.

12 *The Brown, Driver,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Hendrickson Publishers, 1996).

13 구약성서의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음을 참조하라. Michael C. Legaspi, *Wisdom in Classical and Biblical Tradition* (Oxford Academic, 2018). 특히 이 책의

궁극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간명하게 밝히는 구약에서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해결된 질문이자, 되풀이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질문이다. 오히려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유의미하게 남은 질문은 “누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런데 지혜 주체에 관한 질문은 인식론적 존재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누가 권위 있는,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지혜를 생산하는지에 관한 권력 담론으로 전이된다.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지혜의 담지자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담론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라는 정체성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의인과 악인을 누가,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한 권력 담론으로 전개된다.

쿠파문서의 대표적인 지혜문헌인 4Q지침서는 ‘창조,’ ‘심판,’ 그리고 ‘지식’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예컨대, 4Q418 제69단편에서 창조와 심판 주제는 창조자와 심판자가 한 분인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따라서 피조물은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어느 진영에 속할지 선택해야 한다.

4Q418(4QInstruction^d) 제69단편(+제60단편)¹⁴

6. 너희는 창조되었다 (…).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구덩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 너희 (죄)를 일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7. 어두운 곳들이 너희 변명에 대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자들, 곧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희를) 심판하라

2장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레가스피에 따르면,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מַדְעָה/다아트, חָכְמָה/테아, עֵלְמָה/야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기술, 성적 친밀감 등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반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 우주론, 윤리, 사회적 도덕, 경건을 포함한다.

14 F. 마르티네즈, E. 티그렐라아르 지음,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3』 (나남, 2008), 276. 영어 번역은 DJD 34권 참조.

일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8. 마음이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멸절될 것이요, 악의 자녀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악에 빠진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9. 너희가 심판받을 때 궁창의 기초들이 소리 지를 것이요, 모든 (….) 이 천둥 칠 것이요 (….)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
10. (공백 그리고 진리의 선택된 자들이요 (….)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 그리고 모든 지식을 계속해서 살피는 자들인 너희가
11. 어떻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명철을 얻기 위해 고생하였으며,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 모든 (….)에 조심하였고
12. 오랜 세월 동안 피곤합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식이 (….)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13.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하늘(의) 아(들)들은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일들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항상 피곤하게 했습니다.”
14. (그들은 영원한 빛(… 영광과 지극한 찬란함 안에서 행하지 않겠는가? 너희는 (…))
15. (….)의 궁창 안에서(….) 신들의 회합에는 모든 (….)이 있다. (공백) 그리고 (….)의 아들인 너는

4Q418 제69단편은 6행에서 ‘창조’와 ‘영원한 구덩이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한 문장에서 언급함으로써,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완결되는 단선적 시간관을 보여준다. 이런 시간관에 기대어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은 심판의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처할 운명은 8행에서 분명히 제시된다. “마음이 어리석은 모든 자들과 모든 악의 자녀들”(כול אוילי לב ובני עולה) / 콜 에빌레이 레브 우브네이 아블라)은 심판 때 수치를 당하고 멸절한다. 이 주제는 바로 이어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피곤하더라도 계속해서

www.kci.go.kr

진리를 추구하라는 촉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현재 뒤 문장이 사라졌지만, 15행에서 ‘신들의 회합’으로 번역한 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 모임’(אֱלֹהִים סֵדֶר/소드 에일림)¹⁵이고, 이 구는 콤란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의인/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모임/악의 자녀들이라는 이분법적 용어들은 단순한 정체성에 대한 지시사가 아니라, 지혜 추구를 촉구하는 말들을 통해 지혜/권력 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콤란 공동체가 4Q지침서에서 대립항으로 제시하는 악인/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일반 명사가 아니라, 그들과 종교적,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인 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콤란 공동체가 겨냥하는 대상은 역사적으로 하스몬 왕조와의 정치적 관계에서 읽어야 한다. 다메섹 문서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90년 후에 설립되었으며, 의의 선생은 20년 후에 등장했다(CD 1:5-10).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전자는 기원전 197년으로, 후자는 기원전 177-175년이다. 두 연대가 제시하는 바는, 콤란 공동체가 하스몬 왕가의 출현 배경이 되는 마카비 봉기 시대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콤란문서에 기록된 증거 중 콤란 공동체와 하스몬 왕가의 정치적, 종교적 관계는 ‘의의 스승’과 ‘악한 제사장’ 사이의 첨예한 갈등에 관한 언급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악한 제사장의 신원과 관련하여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에서 아리스토틀로스 2세와 힐카누스 2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다.¹⁶ 악한 제사장이라는 코드

15 BDB는 אֱלֹהִים의 의미로 ‘비밀 모임이나 자문’을 제시한다(예: 암 3:7; 잠 11:13, 20:19, 25:9).

16 악한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많은 제안이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상은 요나단과 시므온이다. William H. Brownlee, “The Wicked Priest, the Man of Lies, and the Righteous Teacher: The Problem of Identity,” *The Jewish Quarterly Review* 73/1 (1982), 1-37. 한편 마티네즈와 반 데르 부드는 여섯 명의 하스몬 왕들을 통칭한다고 제안한

명 외에도 두 집단의 갈등 관계는 역사적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쿰란 공동체는 그들 공동체가 하스몬 왕조에게 물리적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페세르 하박국에 따르면, 악한 제사장은 “의의 선생을 유배지의 집까지 쫓아가서 그의 독한 분노로 그를 혼동하게 했다. 그리고 안식일, 즉 속죄일에 안식하기로 정한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안식일인 금식일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1QpHab 11:4-7). 이 기록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바로 악한 제사장이 속죄일에 쿰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속죄일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 두 집단이 속죄일을 같은 날에 지키지 않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¹⁷ 같은 날에 속죄일을 준수했다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쿰란 공동체는 당시 주류 사회와 다른 달력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예컨대, 이들은 구약성서에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 절기를 준수하였다. 4Q324d에 따르면,¹⁸ 이들은 밀 수확을 축하하는 칠칠절에 이어서, 새 포도주 절기(4Q324d 3:2)와 새 기름 절기(4Q324d 3:7)를 준수하였다. 이 외에도 계절과 계절 사이에는 테쿠파(Tekufah, תְּקוּפָה)라 불리는 특별한 날

다.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and A. S. van der Woude, “A ‘Groningen’ Hypothesis of Qumran Early Origins and Early History,” *Revue de Qumrân* 14 (1990), 521-542. A. S. van der Woude, “Wicked Priest or Wicked Priests? Reflection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Wicked Priest in the Habakkuk Commentary in Essays in Honour of Yigael Yadin,” *Journal of Jewish Studies London* 33 (1982), 349-59.

17 대속죄일 사건과 관련해서 쿰란 공동체의 제의력을 통해서 본 하스몬 왕조와의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 Talmon, “Yom HaKippurim in the Habakkuk Scroll,” *Biblica* 3/2 (1951), 549-63. 탈몬은 페세르 하박국에서 ‘그들의 하체’(מַעֲרִיחַם)를 ‘그들의 절기들’(מִזְבְּחֵיהֶם)로 바꾼 것은 페세르 하박국 저자의 종파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8 4Q324d는 DJD 34권에 이미지만 실리고, 공식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Eshbal Ratzon and Jonathan Ben-Dov, “A Newly Reconstructed Calendrical Scroll from Qumran in Cryptic Scrip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6/4 (2017), 905-936.

을 기념일로 준수하였다(4Q324d 2:8; 3:9; 4:9; cf. 제1에녹 75:1-3).¹⁹ 무엇보다도 콤란 공동체는 364일 태양력을 사용하였다(예: 4Q317, 318, 319; 4Q324d; 4Q394 1-2, 3-7i, 1-3).²⁰ 이 공동체가 364일 달력에 관한 문서를 여러 개 남긴 것을 볼 때, 당시 예루살렘의 하스몬 왕조와는 다른 제의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콤란 공동체가 다른 달력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속죄일을 하스몬 왕조와 다른 날에 지켰다는 사실은 그들이 완전히 다른 시간 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달력과 절기의 개정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예컨대, 나보폴라살은 달력 개혁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²¹ 달력 변경권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니엘서 7:25에서 넷째 짐승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시간을 변경하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안식일과 절기 폐지에 관한 칙령 반포(마카비상 1:45; 마카비하 6:6)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²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 구절을 364일력에서 360일

19 콤란력에서는 매 3개월의 마지막 날이 테쿠파에 해당한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는 4회 나타난다(출 34:22; 삼상 1:20; 대하 24:23; 시 19:5-6).

20 콤란 공동체는 에녹서와 회년서 같은 364일 달력 체계로 알려진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364일 달력에 관한 자체 문서도 대략 20여 개 남겼다. 콤란 제의력은 각 계절이 3개월씩, 91일(30일+30일+31일)로 이루어져 총 364일이 되고, 각 계절은 태양이 창조된 수요일(창 1:14-18)에 시작한다. 이 콤란 제의력의 문제는 실제 365.25일력보다 1.4일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달력은 실제 사용할 때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로렌스 슈프만은 “이 달력은 아마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시험대에 올라와 본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Lawrence Schiffma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4), 304.

21 W. W. Hallo, “The Concept of Eras from Nabonassar to Seleucus,”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of Columbia University* 16-17, 1984-85, 143-151.

22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주를 마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마카비상 1:45).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마카비하 6:6). 다니엘 7:25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연결하는 대표적 입장은 콜린스가 있다. J. J. Collins,

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³ 달력에 관한 것이든, 절기에 관한 것이든 시간과 절기는 과거나 현재나 권력을 가진 집단의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쿵란 공동체와 하스몬 왕조가 서로 다른 시간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호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상호 적대 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쿵란 공동체는 1QS에서 야하드(יָהֳדִים/공동체)의 제사장들을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한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사독계 제사장’이라 불린 것은 하스몬 왕조와 구별하기 위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었다. 즉, 쿵란 공동체는 사독계 자손이 아닌 하스몬 왕조가 기원전 2세기와 1세기 동안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장악한 정세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들과 구분 짓기 위해 ‘사독의 아들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를 통해 비난한 것이다. 따라서 하스몬 왕조와 쿵란 공동체는 서로 다른 지도자에 의해 매우 다른 율법 해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쿵란 공동체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현실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지닌 구성체는 바로 자신들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그들은 율법 해석의 근거를 잃으면 지적 권력도 잃는다고 믿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하스몬 왕조에 맞서서 쿵란에 자리 잡은 공동체는 대항적 지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적 생산물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이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쿵란 공동체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진리의 권위를 주장하고, 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쿵란

Daniel: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Wm. B. Eerdmans Publishing, 1984), 81.

23 대표적으로 밴더캠이 있다. James C. VanderKam, “2 Maccabees 6, 7A and Calendrical Change in Jerusalem,”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2 (1981), 52-74. 이 의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Davies, Philip R. Davies, “Calendrical Change and Qumran Origins: An Assessment of VanderKam’s Theor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1981), 80-89.

공동체의 이런 대항적 지식 담론은 지혜문헌을 통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4Q지침서에 나타나는 ‘장차 이루어질 신비’(הַיְחַיִּי לְרַצְיָהּ)와 ‘심판’ 개념은 쿨란 공동체가 하스몬 왕조로 대표되는 당대의 권력에 대항하는 담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특징적으로 예시한다.

3. 4Q지침서에 나타난 ‘장차 이루어질 신비’(הַיְחַיִּי לְרַצְיָהּ)

쿨란에서 4Q지침서 사본이 여러 개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문헌이 쿨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헌이었는지를 보여준다.²⁴ 이 문헌은 개인과 관련된 재정 및 가족 문제, 개인과 권위자 간의 관계 등 전통적인 지혜 문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4Q지침서에는 잠언에 나타나는 것 같은 음식 절제(4Q416 2 ii 18-20)와 빛을 빨리 갚는 것의 중요성(4Q416 2 ii 4-6) 같은 세속적 지혜의 주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문헌은 지혜의 신비, 이해하는 자(יִנְבִּינִי/메빈)의 지위,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4Q417 2 i 10-12)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서 지혜 문학의 주제를 확연히 벗어나고 있다. 이런 4Q지침서의 문학적 특징을 엘빈(Elgvin)과 고프(Goff)는 서로 다른 두 문학 양식, 즉 지혜 문학 양식과 묵시적 양식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²⁵ 그러나 니짤은 4Q지침

24 4Q지침서의 초판은 1999년 DJD 시리즈 34권으로 출간되었다. John Strugnell, Torleif Elgvin, and Daniel J. Harrington,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Volume XXXIV: Qumran Cave 4. XXIV: Sapiential Texts. Part 2. 4QInstruction (Mûsar Le Mevîn): 4Q415ff with a re-edition of 1Q26* (Clarendon Press, 1999). 고프에 따르면, 4Q416, 4Q418의 저작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초반으로, 4Q417을 기원전 1세기 말로 본다. Matthew J. Goff, *4QInstruction* (Society of Biblical Lit, 2013), 4-5.

25 Goff, *4QInstruction*. T. Elgvin, “Wisdom and Apocalypticism in the Early Second Temple BCE—The Evidence of 4QInstruction,”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L. H. Schiffman, et al. eds.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226-47.

서의 문체 분석을 통해, 훈계 단락과 묵시적 지혜 단락이 서로 다른 편집층에서 온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즉, 4Q지침서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지혜 문학 양식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독특한 작가가 구성한 독립적인 통일된 작품임을 논증한다.²⁶ 4Q신비의 서 역시 세속적 지혜와 종말론적 지혜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파란문서에서 이런 양식은 두 편집층의 결합보다는 쿠파란 공동체에서 나온 새로운 지혜 담론 유형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²⁷

쿠파란 지침서 중 4Q416, 4Q417, 4Q418 세 사본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남아있다. 4Q416은 순종하는 천체들의 질서 있는 행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 설명은 악인의 운명을 설명하는 종말론적인 부분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4Q지침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 즉 모든 피조물에게 고유한 위치와 임무가 할당되었다는 개념을 소개한다. 4Q417은 이해하는 자에게 주어진 통찰력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악한 성향에 유혹되지 말라는 지시로 시작한다. 4Q418은 4Q416 제1단편을 반복하면서 시작한다. 즉, 천체의 발광체는 고유한 위치가 할당되고, 각각 표징이 된다. 이 단락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심판 날에 모든 불의는 영원히 진멸된다. 이 단락은 가난과 돈을 꾸는 주제로 급전환한다. 4Q418 제43, 44, 45단편은 장차 이루어질 신비에 대한 탐구 주제와 심판, 그리고 지혜 주제가 모두 한꺼번에 이질감

26 B. Nitzan, "The Ideological and Literary Unity of 4QInstruction and its Authorship," *Dead Sea Discoveries* 12 (2005), 257-279.

27 콜린스는 솔로몬 지혜서, 4에스라, 집회서, 에녹서, 회년서 등에서 묵시와 지혜의 결합을 볼 수 있고, 이 두 양식의 결합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쿠파란문서라고 주장한다. John J. Collins, "Wisdom, Apocalypticism and the Dead Sea Scrolls," *Jedes Ding hat seine Zeit: Studien zur israelitischen und altorientalischen Weisheit. Diethelm Michel zum 65. Geburtstag*, Anja A. Diesel, Reinhard G. Lehmann, Eckart Otto and Andreas Wagner, eds. (De Gruyter, 1996), 19-32.

없이 서로 엮여 있다.

엘빈은 4Q지침서의 묵시적 양식의 특징을 הַיְיָ נִרְאָה (라즈 니호예)에서 찾는다.²⁸ 4Q지침서에서 ‘라즈 니호예’가 33회 나오는 것²⁹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³⁰ ‘라즈 니호예’는 ‘신비’를 의미하는 단어 ‘라즈’(רז)와 동사 ‘하다’의 니팔 분사 형태인 ‘니호예’(הִיָּהוּ)가 결합한 것이다. 이 두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대개 ‘a revealed mystery’로 번역한다. 고프(Goff)는 이 표현이 이미 제2성전 시대 유대 문학에서 ‘계시된 지식’(revealed knowledge)으로 쓰인 예들을 보여준다(단 2:27-30; 4QEn^c 5 ii 26-27; cf. 제1에녹 106:19).³¹ 볼드(Wold)는 ‘라즈 니호예’를 ‘존재의 신비’(mystery of existence)로 해석하고, 토라와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그에 따르면, 4Q417 1에서는 토라와 ‘라즈 니호예’는 동일시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토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토라와 라즈 니호예가 긴장 관계에 있다고 추론한다.³²

그러나 콤파 공동체가 ‘라즈 니호예’에서 니팔 분사 형태로 사용한 ‘니호예’는 단순히 계시된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복합명사로 보아야 한다. 구약성서에는 הִיָּהוּ 동사의 니팔 분사 남성형으로 쓰인 용례는 없다. 그러나 הִיָּהוּ 동사의 니팔형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

28 T. Elgin, “The Mystery That Is to Come: Early Essene Theology of Revelation,” *Qumran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F. H. Cryer and T. L. Thompson, ed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13-50.

29 Nitzan, 216에서 재인용.

30 ‘라즈 니호예’라는 표현의 기능과 번역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tthew J. Goff, *The Worldly and Heavenly Wisdom of 4QInstruction* (Leiden: Brill, 2003), 30-79.

31 Matthew J. Goff, “Reading Wisdom at Qumran: 4QInstruction and the Hodayot,” *Dead Sea Discoveries* 11/3 (2004), 266.

32 Benjamin Wold, *4QInstruction: Divisions and Hierarchies* (Brill, 2018), 154.

어, 열왕기상 12장 24절에서 נַהִיָּה(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는 ‘되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잠언 13장 19절에서 נַהִיָּה(니팔 분사 여성 단수 절대형)는 ‘이루어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열왕기상 12:24 נִאֲתִי נַהִיָּה הֲרַבֵּר הַזֶּה (메이티 니호야 하다바르 하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개역개정)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for this thing is from me”(NRSV)

“for this thing is of Me”(JPS)

잠언 13:19 תַּאוּהָ נַהִיָּה תַעֲרַב לְנַפְשׁ (타아바 니호야 테에라브 레나페쉬)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개역개정)

“이루어진 소망은 영혼에 감미롭건만”(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A desire realized is sweet to the soul”(NRSV)

“The desire accomplished is sweet to the soul”(JPS)

잠언 13장 19절의 용례에서처럼 ‘니호예’는 니팔 분사형으로 해석할 때, 선행하는 명사 ‘라즈’를 형용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렇다면 ‘라즈 니호예’는 우리말 어법으로 ‘이루어진 신비’ 혹은 ‘이루어질 신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4Q지침서가 미래에 일어날 신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라즈 니호예’를 미래 시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차 이루어질 신비’로 번역하고자 한다.³³

이 ‘장차 이루어질 신비’는 먼저 창조 질서의 작동 원리에 관해 알

33 고프는 ‘라즈 니호예’를 “the mystery that is to be”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Matthew J. Goff, “Wisdom, Apocalypticism, and the Pedagogical Ethos of 4QInstr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Toronto, 11 November 2002), 1, <https://www.sbl-site.org/assets/pdfs/Goff.pdf>. 강성열은 4Q지침서 전체에서 ‘라즈 니호예’를 ‘존재의 신비’로 번역한다. F. 마르티네즈, E. 티그렐라야르 지음,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3』 (나남, 2008), 250-284.

려준다. 구약성서에서 창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행위의 전제로 이해한다.³⁴ 이미 폰 라트는 창조와 구원사가 통합을 이루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제 콤파넨 지혜 문학에서는 창조는 구원을 넘어 심판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4Q지침서에서 창조는 천체와 징조와 절기의 순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서 심판으로 연결된다.

4Q416(4QInstruction^b) 제1단편³⁵

7. 그리고 하늘의 무리를 그는 굳게 세우셨으며 ... 그리고 발광체로 하여금...
8. 제각기 그들의 표징들과 ... 의 증거들이 되게 하시고 (...)
9.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직무와 (...) 그들은 자세히 설명할 것이요...
10. 하늘에서 그는 최악의 행동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아들들은 호의를 베풀 것인바,
11. 그것의 끝 (...)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두려워할 것이요 (...)
12. [바]다와 깊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모든 영도 뒤흔들리며, 하늘의 아들들도 그것의 심판(날에...)

4Q416 제1단편 7-12행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발광체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시간과 계절과 절기를 삼는다는 창조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인간의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단순한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아니라, 바다와 깊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육체가 뒤흔들리는 정도

34 G.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T Doctrine of Creation,"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McGraw-Hili, 1966) 131-43.

35 F. 마르티네즈, E. 티그셀라아르 지음,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3』, 253.

의 종말론적 사건임을 분명히 언급한다. 창조와 장래에 일어날 심판 사건까지 망라하여 '신비'로 표현하는 것은 4Q417에서도 계속된다.

4Q417(4QInstruction) 1 i 1-6(사역)

1. [그리고] 너, 너는 []를 이해하는 자 []
2. [너는 바라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크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너는 깊이 생각하라, []의 시작
3. [] [] 그리고 장래의 신비와 옛적에 행한 일과 장래에 있을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바라볼지어다]
4. [무엇에서] 영원히 [무엇에 대해]
5. 모든 [일]과 [행위]에서 [이 있고, 무엇이]
6. [그리고] 낮과 밤으로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진리와 죄악과 지혜를 알게 되리라.
7. 너는 어리석음을 알게 되리라. 그들의 길에서 모든 행위와 그들의 형벌과 함께 모든 시대의 영원히, 그리고 영원의 형벌.
8. 그런 다음 너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지식의 신은 진리의 기초³⁶이기 때문이다. 장차 올 신비에 의해(따라)

이 신비는 창조에서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이 계획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위치와 임무를 포함한다. 즉, 피조물이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³⁷

인간은 이 신비적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4Q지침서

36 여기서 '기초'로 번역된 히브리어 **קִיּוּם**(쑤드)는 **קִיּוּם**(에쑤드)와 교환 가능한 단어로 보아, DJD 34에서 'foundation'으로 번역한 것을 따른다. E. Qimr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Brill, 2018), 108, 112.

37 Bilhah Nitzan, "Education and Wisdom in the Dead Sea Scrolls in Light of their Background in Antiquity," *New Perspectives on Old Texts: Proceedings of the T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Orio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ead Sea Scrolls*, Esther G. Chazon, Betsy Halpern-Amaru, Ruth A. Clements, eds. (Brill, 2010), 109.

에는 에스겔의 ‘눗 같이 빛난 사람’(40:3)이나 다니엘서의 ‘가브리엘’ 같은 이가 없다. 그래서 4Q지침서는 인간이 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한다(4Q416 2 i 5; 4Q416 2 iii 14-15; 4Q417 1 i 3, 18; 4Q418 123 ii 3-4 등).³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선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계시해 준다.

그런데 4Q지침서는 신비한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를 연결한다. 즉, 4Q지침서에서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가난한 자’로 묘사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사회경제학적 용어로 사용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티헬라(Tigheelaar)는 4Q지침서의 수신자가 가난한 자인지를 질문한다. 그는 서술형이 아닌 조건절로 읽으면서, 수신자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³⁹ 그러나 콜린스(Collins)는 조건절이 아닌 직설법으로 ‘가난한 자’로 불린다고 제안한다.⁴⁰ DJD 34권의 편집자인 스트루그넬(Strugnell)과 해링턴(Harrington)⁴¹ 역시 직설법으로 “너

38 Goff, “Reading Wisdom at Qumran,” 267, 각주 18.

39 Eibert Tigheelaar, “The Addressees of 4QInstruction,” in *Sapiential, Liturgical and Poetical Texts from Qumran: Proceeding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Qumran Studies, Oslo 1998*, D. Falk et al. eds. (Leiden: Brill, 2000), 62-75 (특히 71쪽 참조); E. J. C. Tigheelaar, *To Increase Learning for the Understanding Ones: Reading and Reconstructing the Fragmentary Early Jewish Sapiential Text 4QInstruction* (Leiden: Brill, 2001).

40 J. J. Collins, *Jewish Wisdom in the Hellenistic Age* (John Knox Press, 1997), 118; J. J. Collins, “Wisdom Re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Scrolls,” *Dead Sea Discoveries* 4 (1997) 265-281 (특히, 272).

41 John Strugnell, Torleif Elgvin, and Daniel J. Harrington,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는 가난하다”로 번역한다. 4Q지침서에서 ‘가난’이라는 용어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4Q415의 한 단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Q415(4QInstruction^a) 제6단편 1-5(사역)

1. 사람들의 모임⁴²[...]
2. 너는 가난하다. 그러나 왕들...
3. 너의 모[임...] 중에 있는 너의 가난함
4. 장차 이루어질 신비와 더불어 이것들을 시험하라. 그리고 [...]
5. [...]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의 무게로써

4Q415 제6단편에서는 수신자의 무리 가운데 가난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 단편에서 가난과 **קטב**(바한) 동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편에서 이 동사는 ‘시험하다’는 뜻으로 번역한다. 예컨대, 시편 17:3⁴³과 스가랴 13:9⁴⁴에서는 우리말로 ‘시험하다’로 번역하고, 욥기 23:10⁴⁵에서는 ‘단련하다’로 번역한다. 구약성서에서 **קטב**(바한) 동사의 주된 용례는 ‘연단’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4Q415 제6단편에서 수신자의 모임이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이런 것을 ‘시험하라’는 것은 ‘연단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수신자의 집단이 가난하고, 이 가난을 연단으로 간주하

Volume XXXIV.

- 42 여기서 ‘모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DJD34에서 첫 글자를 **ב**으로 복구하여 **בִּיב**(소드)로 읽은 것을 근거로 하였다.
- 4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 44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 45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Q지침서는 이어서 이 가난한 수신자 집단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치고 있다.

4Q416(4QInstruction^b) 2 iii 8-15(사역)

8. (공백) 너는 가난하다. 네 기업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 혼돈에 빠지지 마라. 네 경계선이 옮겨지지 않도록 말이다.
9. 그리고 만일에 그가 너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 안에서 행할 것이요, 장차 이루어질 신비의 기원을 탐구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10. 무엇이 그것에 분배되었는지를 ... 그리고 너는 의로운 길로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길에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존중하여라.
11.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여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으로부터 네 머리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요, 너를 귀인들 중에 앉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광의 유업에 더하여
12. 그는 너에게 권한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 그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하여라. (공백) 너는 가난하다. 다음처럼 말하지 말라. “나는 궁핍해서
13. 지식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에 따르고, 모든 ...으로 네 마음을, 그리고 많은 지식으로 네 생각들을 단련하여라.
14.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탐구하라. 그리고 모든 진리의 길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든 불의의 뿌리를
15.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에게 무엇이 쓴 것이며, 사람에게 무엇이 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난한 중에도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인용한 4Q416 제2단편에서 가난한 수신자 집단에게 주는 지침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즉, 수신자 집단은 가난하지만, 결코 주어진 기업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가난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

고 있다. 무엇보다 가난을 핑계로 지식을 추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이 단편은 가난이라는 물질적 어려움 중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탐구하고 ‘모든 진리의 길’을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무리와 대비되는 물질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수신자 집단이 얼마나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혼돈에 빠지지 마라’(8행)는 지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בלע(בל라)의 히트파엘형은 시편 107:27⁴⁶에서 개역개정에서 ‘혼돈 속에 빠지다’로 번역되고 있다. 극도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수신자 집단이 도덕적 혼돈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기업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진리의 길,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4Q417(4QInstruction) 2 i 9-11(사역)

9. (공백) 네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 [네가 가난할 때] 네 탐욕을 넘치게 품지 마라.
10. 가난한 자보다 더 하찮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너는 애곡할 때 즐거워하지 마라. 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말이다. (즉, 네가 잘 살아야만 할 때).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주시하고]
11. 구원이 시작되는 때를 파악하라. 그리고 누가 영광(영광스러운 불멸)과 수고를 유업으로 물려받을지 알라. [영혼의 통회를 위해 기쁨이 허락된 것이] 아니겠는가 (...)

4Q417 제2단편에서도 가난에 처했을 때 탐욕을 품지 않도록 경계하고, 현실의 미천한 삶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장차 이루어질 신비

46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와 구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누가 영광과 수고(כבוד/아말)를 유업으로 물려받을지 알라”(11행)는 명령문은 가난하고 수고하지만, 장차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선언적으로 보여준다.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 자기 정체성을 근거로 ‘라즈 니호예’는 ‘장차 이루어질 신비’에 대한 약속의 지시사로 볼 수 있다. 콤파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혜를 ‘장차 이루어질 신비’라고 부른 것은 두 가지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와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며, 이루어질 일이다. 고프가 이미 지적했듯이, ‘라즈’는 다니엘서와 제1에녹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이지만,⁴⁷ ‘라즈 니호예’는 콤파 지혜서에서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나타난 복합명사는 당대 현실 정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기대하고 새로운 질서의 임박한 도래를 고대하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콤파 공동체의 종말론적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혜가 이루어질 지혜이지만, 그들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만 계시된 지혜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신비’라고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Q지침서는 영적인 백성에 속한 인간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으나, 육신의 영을 물려받은 자들에게는 신비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4. 4Q지침서에 나타난 심판 개념

4Q지침서의 종말론적 성격은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 ‘장차 이루어질 신비’(라즈 니호예)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에게 선

47 Goff, *4QInstruction*, 15.

언하신 심판에 관한 가르침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4Q지침서에서 신비한 지식은 ‘심판’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4Q지침서의 종말론 단락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절정이 다가오고, 반면 통찰력을 추구하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4Q지침서에서 우리말 ‘심판’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어이다. 첫 번째는 **מִשְׁפָּט**(미쉬파트)이고, 두 번째는 **פְּקוּדָה**(페쿠다)이다. 각각의 용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4Q지침서는 먼저 **מִשְׁפָּט**(미쉬파트)를 사용하여 창조주가 심판주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4Q416 문서를 보면, 발광체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는데, 고프는 이를 “하나님이 구성한 창조적 질서의 특징”을 시사한다고 지적한다.⁴⁸ 그런데, 창조에 대한 언급은 바로 이어서 심판 선포로 이어진다. 천체의 발광체에 대한 지식과 심판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4Q지침서는 세속적 지식과 종말론적 지식 사이의 간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4Q지침서를 볼 때, 쿰란 공동체는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연속적 시간 개념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창조주와 심판주이신 한 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제시한다.

4Q416(4QInstruction^b) 1:10-17

10. 하늘에서 그는 최악의 행동을 심판(**מִשְׁפָּט**)하시며, 그의 신실한 모든 자녀는 그로부터 호의로 받아들여질 것이요
11. 그것의 끝…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악으로) 스스로 더럽힌 자는 절망 속에서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를 두렵게 할 것이다.
12. [바]다들과 깊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모든 영도 멸망

48 Goff, *4QInstruction*, 10.

할 것이며, 하늘의 자녀도 그날에 기뻐할 것이다.

13. 그리고 모든 악이 심판받을 때(הַשְׁפָּטָה), 그리고 모든 죄악이 끝날 것이요, 진리의 때가 영원히 완전해 질 것이요, 거기에 (...)가 영원할 것이다.
14. 모든 영원한 시기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지요, 옛부터 그의 영원한 해들이 (...)
15. 그래서 의인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모든 심[판(שֹׁפֵט)] ... 의 창조주]
16. 그것은 육체의 [성]향이요, [...]을 깨닫는 자들로부터
17. 그의 피조물들 (...) 왜냐하면(...)

위의 4Q416 제1단편은 심판의 대상을 ‘신실한 자녀들’과 ‘하늘의 자녀들’과 ‘스스로 더럽힌 자’로 구별한다. 바로 이런 용어를 통하여, 4Q지침서의 저자/수신자 집단의 정체성 인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야웨가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은 이미 구약성서의 야웨즉위 시편(96-99편)에 나타난다.⁴⁹ 모빙켈은 야웨즉위 시편에서 “야웨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온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왕이 되어 온 세상에 의해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한다.⁵⁰ 야웨즉위 시편에 나타난 종말론적 심판 개념은 4Q지침서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신비’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49 야웨즉위 시편(Yahweh Enthronement Psalms)은 모빙켈이 분류한 양식이다.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ans. D. R. Ap-Thomas (2 vols: New York: Abingdon, 1962), I:106. 예컨대, 시편 96: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שֹׁפֵט)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שֹׁפֵט).” 시편 98:9 “그가 땅을 심판하러(שֹׁפֵט)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שֹׁפֵט).”

50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I:110.

4Q418(4QInstruction^d) 77 : 2-4(사역)

2. [장차 이루어질 신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 의 번성함을 보도록 하여라.
3. [...] 그리고 [그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하면 너는 인간에 대한 심판(שפוט)을 이해할 것이요, 그리고 (...)의 무게를
4. [...] 그의 영을 따라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유창한 말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이해하라. 시간의 무게에 따라. 그리고 [...]의 분량...

4Q418 제77단편은 ‘장차 이루어질 신비’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행해질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 심판은 ‘영과 말’에 따라서 행해진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어리석은 자들과 악의 자녀를 심판할 것이라는 선포는 4Q418 제69단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Q418(4QInstruction^d) 69 ii

6.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구덩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죄를 일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7. 어두운 곳들이 [...] 너희 간구에 소리 지를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희들] 심판하러(שפוט) 일어설 것이다. 그때
8. 마음이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멸절될 것이요, 악의 자녀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악에 빠진 [모]든 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9. 너희가 심판받을 때(שפוט) 궁창의 기초들이 소리 지를 것이요, 그리고 모든 [...] 천둥 칠 것이요 (...)을 사랑하는

4Q418 69 ii 역시 창조와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결하는 사

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멸절되지 않도록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편 4Q지침서는 심판의 의미로 **מִשְׁפָּט**(미쉬파트) 외에도, **פְּקוּדָה**(페쿠다)를 사용한다. 이 히브리어의 동사 **פָּקַד**(파콰드)는 파생된 명사로써 영어로는 ‘visitation’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방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래 뜻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미 구약성서에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다(예: 사 10:3; 렘 8:12; 10:15; 11:23; 23:12; 46:21; 48:3-44; 50:27; 51:18; 호 9:7; 미 7:4; 겔 9:1),⁵¹ 또한 외경 『지혜서』의 여러 곳에서도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3:7)⁵²에서 찾아볼 수 있다.

4Q지침서 중 가장 먼저 4Q416 1:9에 **פְּקוּדָה**(페쿠다)가 나오는데, **מִשְׁפָּט**(미쉬파트)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창조와 연결되고,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로 제시된다. 4Q417 2 i 8에서는 소유격 접미와 함께 사용되어 형벌(**פְּקוּדָה**/페쿠다토)이라는 구체적인 심판의 결과로써 ‘처벌’의 의미로 제시된다. **פְּקוּדָה**(페쿠다)가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로 분명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단락은 4Q416 3:1-4이다.

51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M. E. J. Richardson, J. J. Stamm,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rill, 2000), s.v. 7684.

52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J. J. Collins, “The Mysteries of God: Creation and Eschatology in 4QInstruction and the Wisdom of Solomon,”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John J. Collins, ed. (Leiden: Brill, 2005), 159-80. 특히 콜린스는 179쪽에서 “지혜서는 히브리어 **פְּקוּדָה**(페쿠다)를 번역하기 위해 LXX에서 사용된 *ἐπισκοπή*, ‘방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제시한다(지혜서 2:20; 3:7, 13; 4:15; 14:11; 19:15).

4Q416(4QInstruction^b) 3:1-4(사역)

1.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기업〔 〕에〔 〕이 있다.
2. 〔 〕 그에게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의 기업이 나오고, 그의 찾아[오는](הַקָּדָשׁ) 능력으로〔 〕
3. 〔 〕 악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침묵하지 마소서. 모든 족속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4. 〔 〕 괴로움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4Q416 3:1-4에서 הַקָּדָשׁ(폐쿠다)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악이 끝날 때까지’와 ‘모든 족속에게 진노’와 같은 수식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הַקָּדָשׁ(폐쿠다)는 심판의 결과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평화와 진노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진멸하시고, 의인에게는 사랑과 자비로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침은 세속적 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살 때 의인의 삶을 선택하라는 종말론적 지혜를 가르친다. 4Q지침서는 종말론적 심판과 그에 따른 의인의 삶이야말로 ‘장차 이루어질 신비’의 핵심 지혜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특히 הַקָּדָשׁ(폐쿠다)는 4Q418 문서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17:1; 68:2; 113:2; 209:2).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는 4Q418 단편들은 매우 파편화되어 몇 행만 남아있어서 전체적인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파편화된 문장 속에서 그나마 연계형 다음에 이어지는 명사가 남아있는 113:2는 ‘평화의 찾아옴’이고, 209:2는 ‘악인을 찾아옴’이다. 따라서 비록 매우 단편적인 연계형 명사로 이어진 두 구를 통해서 볼 때, הַקָּדָשׁ(폐쿠다)는 이어지는 명사가 ‘평화’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4Q지침서는 **טַבִּיחַ**(미쉬파트)와 **הַרְוֵה**(페쿠다)라는 두 가지 용어를 통해, 의인의 길은 약속된 평화를 누리고, 악의 길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바로 이 점에서 4Q지침서는 ‘장차 이루어질 신비’를 통해 창조로부터 종말론적 심판에 이르는 가르침을 제시하는 묵시문학적 지혜서이자, 예루살렘의 하스몬을 중심으로한 주류 세력과 스스로 차별화하는 대항 담론적 지혜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Q지침서에서 ‘영원한 소유’(4Q418 69:8ff)와 ‘영원한 영광과 평화’(4Q418 126 i-ii 6-7)를 제시한다는 점을 통해 볼 수 있다. 비록 4Q지침서는 의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불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⁵³ 불멸을 암시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불멸의 보상을 제시한다. 즉, 의인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약속하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경고한다(4Q418 162 4).

5. 결론

제2성전 시대 이후 지혜는 세속적인 기술과 경험적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쿰란문서의 지혜 문헌은 이런 지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지혜 담론은 권력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쿰란의 지혜 문헌 중에서 대표적인 4Q지침서를 그들이 처한 역사적, 종교적 상황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4Q지침서는

53 볼드는 ‘불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점을 언급한다. Benjamin Wold, “Mystery” in the Wisdom of Solomon and 4QInstruc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31/1 (2021), 31.

쿰란 공동체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지식 담론을 발전시키고, 실천적 지혜의 전달자로서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 문헌이다. 4Q지침서는 창조와 심판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쿰란 공동체가 하스몬 왕조에 맞서는 대항 담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4Q지침서에 나타나는 ‘라즈 니흐예’와 ‘심판’ 개념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준다. 쿰란 지혜 문학 특유의 용어인 ‘라즈 니흐예’는 단순한 지적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만 계시된 ‘신비’(라즈/יָסוּד)이자,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니흐예/הַיְהוּדָה) 종말론적 희망을 천명하는 개념이다. 본 논문은 4Q지침서를 통해, 쿰란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종말론적 지혜와 아울러, 당시의 주류 세력에 대한 대항적 지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구자용. “죽음: 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실존.” 『구약논단』 19/3(2013), 348-375.
-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구약논단』 21/3(2015), 99-124.
- F. 마르티네즈, E. 티그셀라아르 지음, 강성열 옮김, 『사해문서3』 나남, 2008.
- An, Chang Seon. “Re-Consider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Mystery’ through the *hyhn zr*(Raz Nihyeh) in 4QInstruction.” *Canon&Culture*, 14/1(2020), 137-166.
- Collins, J. J. *Jewish Wisdom in the Hellenistic Age*. John Knox Press, 1997.
- Elgvin, T. “Wisdom and Apocalypticism in the Early Second Temple BCE—The Evidence of 4QInstruction.”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L. H. Schiffman, et al. Eds.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226-47.
- M.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Harvester Wheatsheaf, 1995.
- Goff, M. J. “Reading Wisdom at Qumran: 4QInstruction and the Hodayot,” *Dead Sea Discoveries* 11/3 (2004), 263-288.

- Goff, M. J. *4QInstructio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 Legaspi, Michael C. *Wisdom in Classical and Biblical Tradition*. Oxford Academic, 2018.
- Nitzan, Bilhah. "Education and Wisdom in the Dead Sea Scrolls in Light of their Background in Antiquity," *New Perspectives on Old Texts: Proceedings of the T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Orio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ead Sea Scrolls*, Esther G. Chazon, Betsy Halpern-Amaru, Ruth A. Clements, Eds. Brill, 2010, 95-116.
- Perdue, Leo G. *The Sword and the Stylus: An Introduction to Wisdom in the Age of Empire*. Eerdmans, 2008.
- Tigheelaar, E. J. C. "The Addressees of 4QInstruction." *Sapiential, Liturgical and Poetical Texts from Qumran*. F. García Martínez, E. M. Schuller, & D. Falk, Eds. (Brill, 2000), 62-75.
- Wold, Benjamin. "'Mystery' in the Wisdom of Solomon and 4QInstruc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31/1 (2021), 29-48.
- Wold, Benjamin. *4QInstruction: Divisions and Hierarchies*. Brill, 2018.

검색어

4Q지침서(4Q415-418), 종말론, 지혜, 라즈 니흐예, 심판, 방문

[ABSTRACT]

4QInstruction(4Q415-418): Eschatological Wisdom in a Time of Crisis

Yoon-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After the Second Temple Period (515 BCE-70 CE), wisdom expanded beyond secular skills and techniques to encompass the mysteries of God. In the trajectory of wisdom transmission, wisdom expanded beyond the secular and experiential focus to a more esoteric and symbolic understanding. This shift is most evident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Dead Sea Scrolls. In ancient Israel, as well as today, wisdom and power are inextricably linked. Discourses of wisdom in ancient Israel, such as who is wise, who has wisdom, and how one can have wisdom, are inextricably linked to discourses of power. These discourses determine what is wisdom, whose wisdom is the right wisdom, and whose wisdom is anti-wisdom or pseudo-wisdom. In this paper, I examine 4QInstruction 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situation. This text demonstrates how the Qumran community developed knowledge discourses in times of crisis and established their community identity as bearers of practical wisdom. 4QInstruction connects the themes of creation, judgment, and wisdom. The concepts of “mystery that is to be” (*raz nihyeh*) and “judgment” in the Qumran indisputably demonstrate how the Qumran community formed a discourse that countered the knowledge discourse of the time, represented by the Hasmonean dynasty. The *raz nihyeh*, which is unique to

www.kci.go.kr

Qumran wisdom texts, unambiguously reveals the Qumran community's eschatological hope to convey a new meaning. The wisdom imparted was not merely intellectual; it was revealed only to members of their community and was thus designated a "mystery." The Qumran teaches the wisdom that the path of the righteous will be rewarded and the path of the wicked will be punished through the two terms *jpvm* (*mishpat*) and *hdwqp* (*pekudah*). In this regard, the Qumran was both an apocalyptic wisdom text that presented the "mystery that is to be" as teachings about eschatological judgment and a counter-discursive wisdom text that distinguished itself from the mainstream, centered around Hasmoneans of Jerusalem. Although the Qumran does not explicitly mention immortality as a reward for the righteous, it does so indirectly by using the word "eternity" to imply immortality. The righteous are promised endless mercy and love, while the wicked are warned of eternal destruction. This paper aimed to demonstrate that 4QInstruction was a wisdom literature that provided instructions to the Qumran community as to how to live in times of crisis.

key words

4QInstruction(4Q415-418), Eschatological Wisdom, Raz Nihyeh, Judgment, Visitation

투고일 :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 2024년 08월 08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8월 12일

www.kci.go.kr